

전라북도 거주 기혼여성의 가족생활실태조사(II):
가족생활문제 및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Family Life Issues of Married Womens in Chonbuk :
Focused on Family Life Problems & Solution*

우석대학교 가정복지 전공
부교수 이 성 희

Dept. of Family Welfare, Woosu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Sung Hee,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family life problems & solution of married women in Chonbuk area as a part of study on family life Issues.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The sample consisted of 1142 married women. The major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degree of recognition about family life problem is rated economic life > woman's parents-in-law> woman's real parents> spouse> children related problems. (2) In the family conflict solution types, the most used types is a rational. (3) The degree of recognition about the family violence is rated abusive languages of husband>husband behavior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 wife's child abuse>husband's child abuse>abusive languages of wife>battered wife. (4) The kins are still considered the primary source for functions of personal support. Also, the needs for the children related equipments is highest among the public support equipments.

* 본 연구는 2000년도 우석대학교 학술연구지원금에 의해 수행되었음.

I. 서론

사회는 가족을 기본적인 단위로 삼아 존속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사회의 기능은 가족자체의 생존과 복지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회가 가족의 기능과 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은 사회자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가족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한 국가사회에서 가족이 부여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가족이 가족원 개인에 대한 복지적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최성재, 1995). 그러나 사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기능의 약화와 와해에 대하여 이를 적절히 예방, 치료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래 전부터 많은 가족관련 연구자와 가족문제를 다루는 일선 전문가들은 가족의 장래를 우려하고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더구나 199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방자치제는 그 지역 고유의 정책개발에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즉,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을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특성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생활문제는 개인적 사상이나 구호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기혼여성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전반적인 가족관계실태와 가족생활문제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특성에 적합한 가족복지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고는 이러한 연구의 의도로 실시된 '전라북도 거주 기혼여성의 가족생활실태조사'의 전체 연구 중 2단계에 해당되는 논고로서 주로 가족생활문제 및 해결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고의 연구 초점이 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전라북도 거주 기혼여성들의 가족생활문제 유형별 특성의 전반적인 경향과 일반적 배경변인들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연구문제 2〉 전라북도 거주 기혼여성들의 가족폭력의 전반적인 경향과 일반적 배경변인들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연구문제 3〉 전라북도 거주 기혼여성들의 가족갈등해결방식의 전반적인 경향과 일반적 배경변인들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연구문제 4〉 전라북도 거주 기혼여성들의 가족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적지원망의 전반적인 실태와 공적지원시설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한다.

II. 선행연구

1. 가족생활문제

우리나라 가족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가족원간의 전반적인 문제성향을 기관(서울시중앙가정상담소, 1991; 한국여성개발원, 1991; 사랑의 전화, 1993)의 상담자료를 근거로 보면, 한국가족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대체로 부부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자녀문제, 고부갈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가족성원간에 보이는 구체적인 주된 문제를 보면(한국여성개발원, 1991), 경제적 무능력, 자녀의 비행문제, 남편의 폭행, 학대, 주벽, 부정으로서 가족성원이 나타내고 있는 문제 중의 5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문제는 비행, 자녀교육 및 이성관계로 24.3%, 그리고 불특정한 가족성원과 관련된 문제로 정신건강, 가출로서 19.3%를 차지하였다. 최근에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변화가 가족에도 영향을 주어 남편의 실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족이 늘고 있으며 이 결과 부부갈등이나 이혼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경제적 어려움이 최근의 새로운 가족문제이자 또 다른 가족문제의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중앙일보, 1998. 8. 18일자).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가족생활문제 유형을 부부문제, 자녀문제,

노부모와의 문제, 경제생활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가족갈등해결방식

가족간에는 가족생활문제들로 인하여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가족간에 내재된 갈등은 가족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심한 경우 가족해체를 초래하게 되지만, 반면 갈등을 원만히 잘 관리하면 가족간에 더욱 강한 결속관계를 이룰 수 있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갈등을 다루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이 괴롭고 혼란되어 갈등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은 자연적이고 지속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갈등 자체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가족간의 기본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신념이나 가치가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의 수용을 통하여 오히려 가족의 안정성 및 결속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가족간에 나타나는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선행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0; 김양희, 1993; 조홍식, 1995)을 통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부간의 경우, 부인은 적극적으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복종과 회피, 남편의 복종강요, 협박 등으로 역기능적인 문제해결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자녀가 복종하거나 문제 및 갈등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가족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의 시도가 부족함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3. 가족폭력

최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족폭력은, 1997년 7월부터 가정폭력특별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재엽(1997)의 한국가정폭력실태 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사회에서 아내구타율은 27.9%이며, 심한 폭력율은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내구타율이 61.1%, 심한 폭력율은 10.1%에 달하는 연구결과(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도 있다. 폭력을 가하는 남편이나 당하는 아내는 특정한 일부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학력이나 직업의 고하에 관련 없이 광범위하게 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녀까지 함께 폭행하여 총체적인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도 전체의 30.4%나 되는(한국여성의 전화, 199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6; 최규련 외 3인 1997에서 재인용)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반면 김재엽·이서원(1998)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은 빈민가구에서 더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전체 아내구타율은 34%이며, 심한 폭력율은 12%에 달하였다. 또한 오늘날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고 장기보호가 기대되는 취약한 노령인구층이 증가하면서 노부모 학대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노인학대를 조사한 연구(전길양·송현애, 1997)에 의하면, 주변에서 노인학대의 경우를 목격한 비율이 조사대상자의 35.7%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양자의 스트레스는 피부양자인 노인학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규명(이성희, 한은주, 1998)되고 있어, 노인학대가 보편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가족폭력을 부부간, 부모자녀간, 성인노부모간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가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4. 사회적 지원

가족 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가족자체가 하나의 자원으로서는 기능을 하게 되지만 가족 외의 자원 즉 공적 지원 체계나 친구, 이웃, 지역사회단체인 사회적 지원은

가족이 어려움을 견디고 가족결속 및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외부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은 개인이 처한 환경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향을 제공해 주어 개인이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가족관계의 유용한 자원이 된다. 사회적 지원망의 범주 중 사적지원망은 대체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일차집단인 가족과 가장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지원망의 범주를 친족, 친구, 이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사회적 지원망을 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친밀감을 느끼고 사회적 접촉을 통해 상호도움을 교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친족(시가, 친가 포함), 이웃, 친구를 포함(이성희, 1993)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망이 수행하는 기능은 정서적 기능, 일손의 기능, 물질적 기능, 친교적 기능으로 분류되고 있다(이성희, 1993; 강성희, 1996). 정서적 기능은 문제 해결에 대한 충고나 애정과 같은 심리적 지지를, 일손의 기능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물질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물질적 기능은 물품이나 돈의 제공 혹은 대여를, 친교적 기능은 경조사나 여가시의 대인적 교류를 말한다. 이의 연구결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도시 기혼여성에게 있어서 정서적기능의 수행정도는 친정친척이 가장 높다(이경희, 1988; 오선주, 1992; 박수정, 1992)는 연구가 일반적이다. 일손기능의 수행정도는 친구보다는 이웃이, 시가친척보다는 친정친척이 더 높게 나타났다(이성희, 1986; 이경희, 1988; 김경원, 1989). 물질적 기능 수행정도에 있어서는 주로 친척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 친정친척이 더 높다는 연구(이성희, 1986; 전미경, 1992), 시가 친척이 더 높다는 연구(이동원, 1984)가 있다. 친교적기능 수행정도에 있어서는 친정친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이경희, 1988; 박수정, 1992), 그 다음이 이웃(박수정, 1992), 친구(이경희, 1988)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가족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의 대부분은 친척에 의해 중요하게 수행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혼여성에게 있어서 시가 친척보다 친정친척은 사회적 지원의 일차적인 근원

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지원망을 사적, 공적 지원망으로 분류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적지원망과 함께, 공적 지원망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으로 조사지역은 전라북도의 6개시(전주 200가구, 군산 150가구, 익산 150가구, 김제, 정읍, 남원시 각 100가구), 8개 군(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군 각 50가구)으로 총 1200여 가구가 그 대상이다. 자료수집은 전라북도 여성정책관실의 협조를 얻어 1999년 4월-6월에 걸쳐 본 연구목적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면접원이 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질문 혹은 표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1198 중 1142부가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신뢰도 계수, 빈도분석, ANOVA, t-Test, 요인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구성

1) 가족생활문제 유형

가족생활문제의 유형별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부부관련문제 (2)시부모관련문제 (3)친정 부모관련문제 (4)자녀관련문제 (5)경제관련문제 등의 해당 영역별로 선행연구(변화순 외 3인, 1997)를 참고로,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의 성격상 응답의 방향이 다른 항목은 재부호화 작업을 거쳐 질문의 방향을 일치시켰다. 3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생활문제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신뢰도 계수, 부부관련문제 .82, 시부모관련문제 .72, 친정부모관련문제 .66, 자녀관련문제 .85, 경제관련문제 .75).

2) 가족폭력

부부간, 부모자녀간, 노부모관계 등에서 일어나는 가족간의 폭력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선행연구(변화순 외 3인, 1997)를 참고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간의 폭력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신뢰도 계수, .81).

3) 가족갈등해결방식

가정생활에서 가족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는 해결방식을 긍정적인 방식인 적극적인 대화형과 소극적인 회피형, 환심보상형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임희규, 1992; 허윤정, 1997)를 참조하여 총 10문항을 선정하였다. 3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가족갈등해결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신뢰도 계수, .60).

4) 사회적 지원

가족 내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지에 대한 사적 지원체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적 지원망의 내용을 선행연구(이성희, 1993; 강성희, 1995)를 참조하여 정서적, 일상적, 도구적, 친교적 지원망 등의 8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지원의 내용에 대해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지를 설문하였다. 그리고 공적지원 시설에 대한 요구도의 파악을 위하여, 가족에게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시설 서비스에 대하여 순위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대상자는 '전라북도 거주 기혼여성의 가족생활실태조사(II), -가족관계를 중심으로-'의 대상자와 동일하다. 연령분포는 40대가 37.4%, 30대 30.7%, 50대 14.7%, 20대가 13.9% 60대 이상이 3.3%의 순이다. 학력은 고졸 42.2%, 중졸이하가 35.9%, 대졸이상이 21.7%이었다. 가정의 월수입은 100-150만원이 28.7%, 50-100만원이 28.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50만원 미만인 가정도 11.6%이었으

며, 200만원 이상의 가정은 14.5%에 그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전라북도 가정의 월수입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다. 기혼여성의 직업으로서는 전업주부가 45.6%, 농축어업이 13.4%, 기타직업이 40.5%이었다. 결혼상태를 보면 초혼이 9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초혼인 경우가 8.1%이었다. 가족수를 보면 4인 이하인 소가족 유형이 62.9%, 5인 이상의 가족유형이 37.2%이었다. 노부모 동거여부를 보면, 비동거인 경우가 75.7%, 동거의 경우가 24.4%이었다. 7세 이하 유아자녀가 있는 경우가 전체의 32.0%이었다. 가족원 중에 만성질환자가 있다라는 경우가 15.9%, 없다라는 경우는 84.1%이었다.

VI.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족생활문제

1) 가족생활문제 유형별 전반적인 경향

가정생활문제의 전반적인 평균점수의 차이를 보면 경제생활문제(2.63)>시부모관련문제(2.22)>부부관련문제(1.96)>친정부모관련문제(1.91)>자녀문제(1.67)의 순으로 나타나 경제생활과 관련된 문제 인식이 가장 높았다.

문제유형별로 문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관련문제에 있어서 문항별 문제인식이 높은 순을 보면, 가족공유시간 적음>성격·생각차이>자녀교육의 무관심>일방적인 대화방식>수입의 부족>지나친 음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한국여성개발원, 1991; 서울시중앙가정상담소, 1991, 김양희, 1993; 조홍식, 1995)에서 부부문제가 주로 성격 차, 자녀문제, 대화부족 등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부부문제의 인식은 주로 내인성 갈등으로 양자적, 대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부관계의 불안정성을 파악해보기 위하여,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경우와 함께 그 이유를 설문하였다. 그 결과, 이혼생각이 있었던 경우가 43.4%

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결혼생활 중 이혼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1순위, 2순위 모두 성격·생각차이로 인한 불만, 남편의 일방적인 대화로 나타나, 이 역시 내인성 갈등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부 양자간의 항상성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부부간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부모와의 관련문제에 있어서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식이 시부모, 친정부모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높았다. 따라서 한 가족의 확대가족과의 긍정적 관계수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몫은 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라 할 수 있다. 사회가 이 몫을 담당해 줄 때, 가족원들은 확대가족 즉 노부모와의 관계수립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확대가족과의 활발한 교류를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자녀관련문제 인식을 보면, 방과 후 아이의 방치문제>성적문제>학교에서의 따돌림 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자녀문제는 주로 외인성으로서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문으로, 전라북도에서는 방과 후 아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적 시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의 성적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모든 가족이 경험하는 공통적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최근 '왕따'가 사회문제화 되는 현실의 반영으로 아이들의 따돌림에 대한 부모의 걱정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친지문제, 체벌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은 상당히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특성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넷째, 경제생활 관련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비교적 문제인식이 높은 순으로 보면, 경조사비>사교육비>차량관련비용>주택비용>식생활비>부채비용>의료비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의 가족문화 특성을 엿 볼 수 있는 측면으로, 가족생활에 있어서 경제적 문제는 실제 기초적 생존비용보다 대외적 비용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체면치레나 사교육의 지나

친 의존 등과 같이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문화에 대한 변화와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일반적 배경변인과 가족생활문제

지역에 따른 가족생활문제를 보면, 비교적 동부산악권(무주, 진안, 장수)이 부부, 시부모, 경제관련 문제 등의 전반적인 가족생활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남부권(임실, 순창, 남원)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자녀관련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가족생활문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전반적으로 가족생활관련 문제인식이 연령 초반부에서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높게 인식되다가 후반부에서는 감소하는 U자형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부부관련 문제인식은 오히려 50대 이상에서 다시 높게 나타나고 있는 M자형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30대 40대에는 친정부모, 자녀, 경제관련 등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문제인식이 높아, 30, 40대가 가족생활주기상 가장 가족생활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는 가족 지원에 있어서 가족생활주기적인 접근법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학력에 따른 가족생활문제는 중졸이하인 경우 전반적으로 가족생활관련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가족생활문제는 농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집단이 시부모관련 문제와 친정부모관련문제가 많았다.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가족생활문제는 월수입 50만원 미만인 집단이 부부, 시부모, 친정부모, 경제관련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가족생활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인 기반조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에 따른 가족생활문제를 보면, 초혼이 아닌, 재혼이나, 사별, 이혼한 경우에 부부, 친정부모, 경제관련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단계 연구에서도 초혼이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가족원에게 질환이 있을수록, 부부, 시부모, 친정부모 관련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료보장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가족생활문제 유형별 문항빈도분포

(단위: %, 점)

구 분	문 항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M(SD)
부부관련 문 제	남편이 자녀교육에 무관심하는 것이 불만이다	140	184	67.6	1.96 (.63)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은 것이 불만이다	191	290	51.8	
	남편의 외도로 문제가 있다	26	49	92.5	
	성생활의 불만이 있다	39	85	87.6	
	남편의 일방적인 대화방식이 못마땅하다	133	210	65.7	
	남편과의 종교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다	48	64	88.9	
	남편이 가사일을 돕지 않아 불만이다	112	197	69.1	
	성격, 생각의 차이로 인한 불만이 있다	173	302	52.6	
	남편이 지나치게 술을 마셔서 불만이다	116	153	73.1	
	남편이 생활비를 충분히 벌어들이지 못해 불만이다	117	165	71.8	
	남편이 살림비용에 일일이 간섭하여 화난다	54	99	84.6	
시부모 (친정부모) 관련문제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이다	40.7(37.3)	17.7(17.2)	51.7(45.5)	2.22 (.74) 1.91 (.61)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다	55(30)	83(36)	86.2(93.5)	
	부모 부양과 관련해 가족간의 갈등이 있다	48(28)	103(43)	84.9(92.9)	
	용돈, 병원비, 약값, 간병비 등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130(66)	145(90)	72.5(84.5)	
	부모를 보살피느라 나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다	54(22)	77(30)	86.9(94.9)	
자녀관련 문 제	방과 후 아이가 방치되는 문제가 걱정이다	155	124	72.1	1.67 (.61)
	아이가 성적이 낮아 걱정이다	119	124	75.7	
	아이가 학교 적응을 잘 못해서 걱정이다	41	66	89.3	
	아子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걱정이다	33	72	89.6	
	아이의 가출로 문제가 있다	14	15	97.0	
	아이가 성격이 난폭하고, 폭력적이어서 걱정이다	13	38	94.8	
	아이의 학교흔지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20	41	93.1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할까봐 걱정이다	83	153	76.5	
	아이가 나쁜 친구와 어울려서 걱정이다	42	64	89.4	
	아이가 친구들에게 맞아서 걱정이다	20	51	92.9	
아이가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아 걱정이다	18	26	95.7		
경제생활 관련문제	주택과 관련된 생활비의 부담이 크다	32.9	21.3	45.7	2.63 (.69)
	식생활비와 관련된 생활비 부담이 크다	31.6	29.2	39.2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	33.2	19.6	47.2	
	학교흔지 비용부담이 크다	8.0	9.2	82.8	
	의료비 부담이 크다	24.7	25.1	50.3	
	경조사비 부담이 크다	39.1	34.6	26.2	
	부모님 생활비 혹은 용돈 부담이 크다	14.2	27.7	58.2	
	교통비 및 차량 관련 비용이 크다	32.5	28.7	38.7	
	빛 값는 부담이 크다	30.4	20.4	49.1	

〈표 2〉 일반적 배경변인과 가족생활문제

구분	내용	부부관련 문 제		시 부모 관련문제		친정부모 관련문제		자녀관련 문 제		경제관련 문 제	
		M	SD	M	SD	M	SD	M	SD	M	SD
지 역	도시권	1.94	.66	2.17	.72	1.91	.63	1.60	.56	2.59	.70
	서부평야권	1.94	.62	2.27	.78	1.89	.62	1.69	.64	2.59	.68
	동부산악권	2.11	.69	2.39	.80	2.01	.65	1.67	.57	2.73	.68
	동남부권	1.92	.51	2.15	.66	1.87	.51	1.84	.68	2.71	.70
F-값		F=3.09**		F=3.13*		F=1.18		F=4.11**		F=2.45*	
연 령	20대	1.93	0.59	1.78	0.53	2.35	0.63	1.58	0.62	1.74	0.58
	30대	2.25	0.74	1.88	0.56	2.72	0.68	1.73	0.60	2.00	0.63
	40대	2.36	0.75	1.99	0.66	2.68	0.67	1.68	0.59	2.04	0.64
	50대	2.23	0.79	2.04	0.66	2.53	0.73	1.41	0.60	1.89	0.62
	50대 이상	2.45	1.42	1.95	0.55	2.53	0.82	1.24	0.53	2.09	0.68
F-값		F=6.35***		F=7.63***		F=3.77**		F=4.66***		F=8.31***	
학 령	중졸이하	2.04	0.63	2.34	0.79	2.04	0.69	1.66	0.70	2.65	0.71
	고 졸	1.99	0.65	2.24	0.75	1.90	0.56	1.70	0.57	2.71	0.67
	대졸이상	1.80	0.56	2.08	0.67	1.81	0.60	1.57	0.52	2.43	0.68
F-값		F=9.65***		F=6.51**		F=8.55***		F=2.46		F=11.50***	
직 업	전업주부	1.96	0.65	2.18	0.74	1.90	0.60	1.64	0.62	2.64	0.72
	농·축·어업	1.96	0.62	2.52	0.81	2.13	0.76	1.66	0.66	2.58	0.71
	기타	1.97	0.62	2.20	0.73	1.87	0.58	1.69	0.58	2.62	0.67
F-값		F=.02		F=5.92**		F=5.53**		F=.43		F=.43	
월수입	50만원 미만	2.19	0.70	2.45	0.75	2.15	0.73	1.77	0.75	2.77	0.79
	50-100만원	2.06	0.66	2.45	0.75	1.95	0.56	1.74	0.64	2.73	0.69
	100-150만원	1.91	0.60	2.27	0.76	1.87	0.61	1.66	0.59	2.64	0.69
	150-200만원	1.87	0.55	2.25	0.68	1.88	0.55	1.61	0.60	2.51	0.62
	200만원 이상	1.87	0.60	2.16	0.69	1.85	0.68	1.57	0.49	2.44	0.65
F-값		F=6.94***		F=2.63		F=3.29**		F=2.15		F=6.28***	
결 혼 상 태	초 혼	1.66	0.59	2.21	0.74	1.88	0.59	2.14	0.57	1.05	0.33
	비초혼	1.84	0.78	2.45	0.82	2.30	0.78	2.25	0.56	1.28	0.44
t-값		t=-2.01*		t=-.78		t=-1.98*		t=-1.55		t=-5.02***	
가 족 원 질환여부	없 다	1.91	0.61	2.15	0.72	1.86	0.61	1.64	0.57	2.60	0.70
	있 다	2.10	0.68	2.47	0.76	2.07	0.59	1.74	0.68	2.71	0.66
t-값		t=-3.97***		t=-5.14***		t=-4.05***		t=-1.65		t=-1.90	
가 족 수	4인이하	1.92	0.64	2.14	0.71	1.88	0.58	1.69	0.63	2.60	0.69
	5인이상	2.02	0.62	2.36	0.77	1.97	0.57	1.64	0.57	2.67	0.70
t-값		t=-2.42*		t=-4.2***		t=-2.13*		t=1.07		t=-1.41	
노 부 모 동거여부	비동거	1.95	0.63	2.12	0.70	1.90	0.60	1.68	0.63	2.61	0.70
	동 거	2.00	0.64	2.42	0.78	1.94	0.65	1.63	0.55	2.70	0.67
t-값		t=-1.05		t=-5.12***		t=-.97		t=.90		t=-1.74	
유아자녀 유 무	없 다	1.00	.65	2.27	.76	1.95	.64	1.68	.63	2.63	.71
	있 다	1.91	.59	2.16	.72	1.86	.56	1.64	.56	2.62	.66
t-값		t=2.10**		t=2.14**		t=2.12**		t=1.01		t=.17	

*p<.05 **p<.01 ***p<.001

그리고 가족수가 5인 이상인 집단일수록 부부, 시부모, 친정부모 관련문제가 많았다. 노부모 동거여부에 따른 가족생활문제는 시부모관련문제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노부모와 동거하는 집 단일수록 시부모관련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자녀 유무에 따른 가족생활문제는 부부, 시부모 관련문제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유아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부관련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시부모관련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생활주기상 유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의 증가로 인한 부부관계의 어려움이 나타난 것으로 지적해 볼 수 있다.

2. 가족폭력

1) 가족폭력의 전반적인 경향

전라북도의 가족폭력의 특성을 보면, 전체 5점 만점에 평균 1.27점으로 전반적으로 폭력의 수위는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족폭력에 대한 과대한 통계수치가 가족폭력에 대해 우리가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사회적 통념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연구자들(Johnson, 1995, 한은주 2000 재인용; Gelles, 1997)의 논의를 지지한다.

매년 가족폭력으로 수백만의 피해자가 생기고 수천 명이 사망하지만 가족폭력은 가족 내에서 펼쳐지는 전반적인 양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가정폭력은 참으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일반인의 건강문제이나 가족관계의 불가피한 측면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Straus와 Gelles(김재엽·이서원, 1998에서 재인용)가 주장한 것처럼 폭력의 행사자들이 자신의 폭력적 행동을 실제보다 적게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연구에 있어서의 비율과 추정치를 '최소한의 추정치'로서 그 심각성은 훨씬 높은 것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폭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해서는 더욱 정교화된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나, 본 논고는 전라북도의 전반적인 가족관련 실태조사라는 한계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전라북도의 가족폭력의 전반적인 경향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남편의 가족폭언> 남편의 주벽, 본인의 자녀구타> 본인의 가족폭언> 남편의 자녀구타> 남편의 본인 구타> 본인의 남편구타의 순이었다. 가족폭력 양상 중 주로 남편의 문제가 상위 순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기혼여성 자신들의 자녀구타가 상위로 보고하고 있는 측면 또한 주목된다.

<표 3> 가족폭력 문항별 빈도분포

(단위, %, 점)

문항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M
나의 주벽으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이 있다	0.9	1.8	97.3	1.19
남편의 주벽으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이 있다	3.5	7.4	89.0	1.47
내가 가족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자주 하여 이로 인한 문제가 좀 있다	1.3	4.4	94.3	1.32
남편이 가족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자주 하여 이로 인한 문제가 좀 있다	3.0	8.9	88.1	1.48
나는 남편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 남편을 때리기도 한다	1.7	6.5	91.9	1.13
간혹 남편은 나를 때리기도 한다	1.2	3.4	95.4	1.28
나는 아이들을 자주 때리는 편이다	0.6	1.0	98.5	1.47
남편이 아이들을 자주 때리는 편이다	1.7	4.3	94.0	1.34
나는 화가 나서 노부모를 때린 적이 있다	0.7	3.5	95.7	1.06
남편은 화가 나서 노부모를 때린 적이 있다	1.0	3.2	95.7	1.06
계				1.27

2) 일반적 배경 특성과 가족폭력

지역에 따른 가족폭력 양상을 보면, 동부산악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폭력의 양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서부평야권이 이러한 양상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동부산악권에서 가족생활문제가 많이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른 가족폭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20대인 경우보다 연령이 높은 경우에 가족폭력 양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학력에 따른 가족폭력을 보면, 학력이 낮아질수록 가족폭력양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낮은 학력과 가족폭력과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월수입과 가족폭력을 보면, 월수입이 적을수록 특히 100만원 미만의 경우의 집단에서 가족폭력 양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김재엽, 이서원(1998)의 연구에서 빈민가구에서 폭력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이는 1단계의 논문결과에서 지적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안정성과 물적기반과의 관련성을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결혼상태에 따른 가족폭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비초혼인 경우가 초혼인 경우보다 가족폭력 양상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가족생활문제가 비초혼과 더 관련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3. 가족갈등해결방식

1) 가족갈등해결방식의 전반적인 경향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가족갈등해결방식의 내용을 요인분석한 결과, 3요인으로 묶여졌다. 제1요인은 합리형, 제2요인은 회피형, 제3요인은 환심보상형으로 명명하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가족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회피형, 환심보상형인 부정적인 문제해결 방식보다 긍정적인 해결방식인 합리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배경변인과 가족갈등해결방식

일반적 배경변인이 가족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체로 '합리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수입이 높을수록, 비초혼보다 초혼일수록 가족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합리형의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일반적 배경변인과 가족폭력

구 분	내 용	가족폭력		구 분	내 용	가족폭력	
		M	SD			M	SD
지 역	도시권	12.47	3.32	월수입	50만원 미만	1.34	.47
	서부평야권	12.60	3.73		50-100만원	1.33	.39
	동부산악권	13.47	4.16		100-150만원	1.24	.33
	동남부권	12.61	3.22		150-200만원	1.20	.30
	F-값	F=2.83*			200만원 이상	1.24	.32
연 령	20대	1.17	.34	학 령	F-값	F=5.32***	
	30대	1.28	.34		중졸이하	1.31	.39
	40대	1.30	.37		고졸	1.27	.36
	50대	1.25	.37		대졸이상	1.20	.28
	50대 이상	1.28	.36		F-값	F=5.99**	
F-값	F=3.01*		결 혼 상 태	초 혼	1.26	.35	
				비초혼	1.38	.44	
				t-값	t=-1.69*		

*p<.05 **p<.01 ***p<.001

<표 5> 가족갈등해결방식 문항별 빈도분포 및 요인분석

(단위, %, 점)

구분	문항	요인 부하량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M	
I 유형 (합리형)	가급적 조용히 의논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75	72.0	17.9	10.2	3.83	
	서로의 차이점과 요구사항에 관해 이야기한다	.77	61.3	23.6	15.1	3.58	
	서로 대립된 부분을 조금씩 양보하는 중간에서 타협하기를 원한다	.83	65.1	21.3	13.5	3.66	
	나는 요구하기 전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분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70	47.6	24.2	35.8	3.23	
	고유치 2.92 누적변량 29.2%						
II 유형 (회피형)	나와 의견이 다르면 언짢은 기색을 보이며 문제점에 대하여 의논하기를 회피한다	.75	25.5	23.3	51.2	2.64	
	나는 강요하거나 명령해서라도 내 방식대로 하도록 나의 주장을 내세운다	.71	14.7	19.7	65.6	2.27	
	대화도중 나는 불리하면 듣지 못한 척 만전을 피운다	.79	9.4	15.5	75.1	2.01	
	해야할 집안 일을 하지 않는다	.63	7.4	12.5	80.0	1.84	
	고유치 2.20 누적변량 51.2%						
III 유형 (환심보 상형)	상대방의 환심을 사서 마음을 바꾸게 한다	.83	13.7	20.5	65.8	2.20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양보해 주면 그 대신에 어떤 것을 해 주겠다고 제안한다	.83	14.6	19.8	65.6	2.23	
	고유치 1.04 누적변량 61.6%						
	계						

<표 6> 일반적 배경변인과 가족갈등해결방식

구분	내용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구분	내용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지역	도시권	14.20	2.86	15.51	2.94	7.68	1.84	학 력	중졸이하	3.49	.76	3.77	.77	3.83	.91
	서부평야권	13.95	2.78	15.17	2.99	7.65	1.88		고졸	3.57	.70	3.87	.74	3.78	.92
	동부산악권	14.13	2.93	15.38	2.87	7.38	1.91		대졸이상	3.64	.63	3.80	.76	3.74	.98
	동남부권	14.82	2.75	14.72	3.24	7.35	1.80		F-값	F=3.15*	F=1.79	F=.73			
연령	F-값	F=3.42*		F=3.19*		F=2.10		월 수 입	50만원 미만	3.42	.81	3.71	.81	3.82	.95
	20대	3.68	.63	3.88	.69	3.73	.97		50-100만원	3.52	.72	3.80	.73	3.75	.90
	30대	3.58	.70	3.80	.78	3.76	.93		100-150만원	3.65	.70	3.89	.74	3.79	.93
	40대	3.55	.70	3.86	.68	3.83	.89		150-200만원	3.60	.65	3.80	.79	3.74	.98
	50대	3.40	.81	3.74	.84	3.81	.95		200만원이상	3.53	.68	3.79	.74	3.80	.91
	50대 이상	3.54	.74	3.59	.87	3.70	.93		F-값	F=2.56*	F=1.50	F=.21			
학 력	F-값	F=2.96*		F=1.58		F=.44		결 혼 상 태	초혼	3.58	.70	3.83	.75	3.79	.93
	중졸이하	3.49	.76	3.77	.77	3.83	.91		비초혼	3.28	.75	3.67	.72	3.80	.87
	고졸	3.57	.70	3.87	.74	3.78	.92		t=3.76***	t=3.76***	t=1.80	t=-.15			
	대졸이상	3.64	.63	3.80	.76	3.74	.98		F-값	F=3.15*	F=1.79	F=.73			

*p<.05 **p<.01 ***p<.001

4. 사회적 지원

1) 사적지원망 실태

가족이 받는 사적지원망의 내용 중 먼저 정서적인 측면에서 '가족간의 걱정과 괴로움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친정식구(39.4%), 친구(20.8%)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집안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의논할 사람'으로는 시댁식구(42.1%), 친정식구(31.8%)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일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평소 여러 가지 잔일이나 가사 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는 친정식구(30.6%), 혼자해결(26.2%)이며, '바쁜 일이 있을 때 주로 자녀를 맡기는 사람'으로는 친정식구(38.5%), 시댁식구(22.2%)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측면에서 보면, '급하게 소액의 돈이 필요할 때 주로 돈을 빌리는 사람'으로는 친정식구(29.4%), 이웃(21.4%), 친구(21.1%)이었으며, '갑자기 생활용품이 떨어졌을 때 주로 빌리는 사람'으로는 이웃(44.4%), 친정식구(18.8%), 친구(13.3%)로 나타났다. 친교적 측면에서 보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만나는 사람'으로는 친구(36.5%), 이웃(31.6%)으로 나타났으며, '친목계, 종교모임 등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으로는 친구(43.2%), 이웃(27.6%)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가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특히 친정식구의 도움은 정서적, 일상적 지원의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핵가족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확대가족과의 유대관계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측면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확대가족과의 유대는 전통적인 부계중심의 친족구조가 아니라 점차 모계중심의 친족구조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러 연구(최재석, 1975; 이동원, 1984; 이광자, 1988; 조정문, 1997)에서도 지지된바 있다. 도구적 측면에서의 지원망은 이웃이 중요한 1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친교적 측면에서는 친구의 지원망이 중요한 1순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사회에서 가족 내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일차적으로는 친척을 찾지만, 이웃, 친구도 중요한 지원의 근원으로서 다양한 사적지원망의 형성은 가족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2) 공적지원 시설 요구도

가족생활문제는 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공적인 부문에서 지원을 받아 볼 수 있다. 이를 파악해 보기 위하여, 가족생활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가 일차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적지원 시설 요구도를 살펴보았다.

공적지원 시설 요구도의 1순위 중에서 10%이상을 차지한 영역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 (19.0%),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15.0%), '방과후 아이들을 돌보는 교육기관' (12.1%), '취미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11.9%), '취업알선 기관' (11.2%)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기혼여성들의 46.1%가 자녀와 관련

〈표 7〉 시적 지원망 실태

	N(%)					
	친정 식구	시댁 식구	친 구	작장 동료	이 웃	혼자 해결
걱정과 괴로움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440(39.4)	139(12.4)	232(20.8)	24(2.1)	77(6.9)	178(15.9)
집안의 중요한 사항을 의논할 사람	347(31.8)	459(42.1)	58(5.3)	13(1.2)	35(3.2)	152(13.9)
잔일이나 가사일을 도와주는 사람	338(30.6)	192(17.4)	100(9.0)	3(.3)	155(14.0)	290(26.2)
주로 자녀를 맡길 사람	376(38.5)	217(22.2)	70(7.2)	1(.1)	188(19.2)	99(10.1)
돈을 빌릴 사람	322(29.4)	118(10.8)	231(21.1)	64(5.8)	234(21.4)	101(9.2)
생활용품을 빌릴 사람	201(18.8)	77(7.2)	142(13.3)	15(1.4)	475(44.4)	134(12.5)
특별한 일이 없어도 자주 만나는 사람	172(15.8)	76(7.0)	399(36.5)	49(4.5)	361(31.6)	9(.8)
친목계, 종교모임 등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	84(8.2)	88(8.6)	445(43.2)	45(4.4)	284(27.6)	56(5.4)

<표 8> 공적지원 시설 요구도

내 용	1순위 N(%)	2순위 N(%)	내 용	1순위 N(%)	2순위 N(%)
어린이 집 등 보육 시설	169(15.0)	53(4.8)	가족생활에 관한 교육기관	90(8.0)	120(10.8)
방과후 아이들을 돌보는 교육기관	137(12.1)	122(11.0)	취미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134(11.9)	201(18.0)
청소년을 위한 공간	215(19.0)	123(11.0)	가정문제 상담소	32(2.8)	59(5.3)
취업알선 기관	126(11.2)	131(11.8)	치매병원	35(3.1)	54(4.8)
직업훈련 기관	48(4.2)	63(5.7)	보건소	19(1.7)	27(2.4)
성폭력 관련 시설	5(0.4)	21(1.9)	양로원	46(4.1)	36(3.2)
가정폭력 관련 시설	10(0.9)	23(2.1)	주간 탁노소	9(0.8)	15(1.3)
가정문제 상담소	32(2.8)	59(5.3)	장애인 복지기관	22(1.9)	33(3.0)

<표 9> 지역별 공적 지원시설 요구도*

내 용	중심권	서부평야권	동부산악권	동남부권
	N(%)	N(%)	N(%)	N(%)
자녀관련시설	226(44.2)	136(48.6)	73(49.3)	86(45.0)
직업관련시설	93(18.2)	39(13.9)	15(10.1)	27(14.1)
취미여가시설	57(11.2)	33(11.8)	26(17.6)	18(9.4)
가족생활관련시설	57(11.2)	37(13.2)	14(9.5)	29(15.2)
의료 및 기타시설	66(12.9)	26(9.3)	20(13.5)	24(12.5)

* 제시된 공적 지원 시설을 다음과 같은 범주로 재구성하여 살펴보았음

- 1) 자녀관련시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방과후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 청소년을 위한 공간
- 2) 직업관련시설: 취업알선기관, 직업훈련기관
- 3) 취미여가시설: 취미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 4) 가족생활관련시설: 성폭력, 가정폭력관련시설, 가정문제상담소, 가족생활에 관한 교육기관
- 5) 의료 및 기타시설: 치매병원, 양로원, 주간 탁노소, 장애인 복지기관, 보건소, 기타

된 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미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을 11.9%가 원한다는 것으로 보아 기혼여성들이 자녀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지만, 자신들을 위한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 또한 중요한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공적지원 시설 요구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복지 시설의 절대수가 부족하고 지역별로 균형적인 분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보건사회연구원, 1996)에서

지역별에 따른 공적지원 시설 요구도의 파악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공적지원 시설 요구도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는 자녀관련시설을 가장 많이 원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중심권에서는 직업관련시설을, 동부산악권에서는 의료시설 및 기타시설을 동남부권에서는 가족생활관련시설을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요구도의 차이로서 전라북도에서 공적지원 시설 설치 시, 참조해 볼 수 있는 자료라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가족의 일반적 특성 및 전반적인 가족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전라북도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가족복지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논고는 이러한 연구의도로 실시된 전체 연구 중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한 1단계의 후속연구로써 주로 '가족생활문제 및 해결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의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생활문제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경제생활>시부모관련>배우자관련>친정부모관련>자녀관련문제의 순으로 경제관련문제를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중 배우자관련 문제는 가족공유시간 적음>성격·생각차이>자녀교육의 무관

심)일방적인 대화방식 등으로 주로 내인성 갈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전라북도 기혼여성들이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경우는 43.4%로, 그 이유로는 1순위, 2순위 모두 성격·생각차이로 인한 불만> 남편의 일방적인 대화로 이혼 고려 이유 역시 내인성으로 양자간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관련 문제인식은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시부모, 친정부모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높았다. 반면, '부모와의 불화' '부모부양과 관련된 가족간의 갈등' 등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비율이 대체로 70-90%로 나타나 노부모와의 관계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녀관련의 문제인식은 방과후 아이의 방치문제>성적문제>학교에서의 따돌림 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외인성으로서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문이다. 반면, 친지문제, 체벌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전라북도가 가지는 긍정적인 특성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경제생활관련 문제인식은 경조사비>사교육비>차량관련비용>주택비용>식생활비>부채비용>의료비의 순으로 가족경제에 압박을 주는 문제가 기초적인 생계비가 아니라 주로 대외적 비용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이와 같은 가족생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보면, 먼저 지역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비교적 동부산악권(무주, 진안, 장수)이 가족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라북도 내의 동부산악권이 가지는 지역경제기반의 취약성이 가족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연령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부부관련문제에 있어서는 50대 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30대, 40대에서 친정부모, 자녀, 경제관련 등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문제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30대, 40대의 기혼여성들의 가족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력별로 보면, 중졸이하인 경우 전반적으로 가정생활관련 문제가 많았으며,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면, 농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집단이 시부모, 친정부모관련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을 보면, 전반적으로 월수입 50만원 미만인 집단이 부부, 시부모, 친정부모, 경제관련문제가 많았다. 즉, 원만한 가정생

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기반조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초혼이 아닌, 재혼이나, 사별, 이혼한 경우에 부부, 친정부모, 경제관련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라북도에서는 초혼이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원 질환여부별로 보면, 가족원에게 질환이 있을수록, 부부, 시부모, 친정부모 관련문제가 많은 것으로 볼 때, 만성적 질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가족수가 많을수록, 전반적으로 가족생활문제가 많게 나타났다. 노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시부모관련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족갈등 해결방식은 합리형, 회피형, 환심보상형의 3요인으로 묶여졌으며, 비교적 회피형, 환심보상형보다 긍정적인 해결방식인 '합리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형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수입이 높을수록, 초혼일수록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가족폭력의 경향을 응답비율별로 살펴보면, 남편의 욕설과 폭언>남편의 주벽·본인의 자녀체벌>남편의 자녀체벌>본인의 욕설과 폭언>남편의 아내구타>본인의 남편구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폭력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 보면, 동부산악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폭력 양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학력이 낮아질수록, 월수입이 낮을수록 특히 100만원 미만의 경우의 집단에서 가족폭력 양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폭력은 높은 연령, 낮은 수입, 낮은 학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 우선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혼상태별로 보면, 비초혼인 경우가 초혼인 경우보다 가족폭력 양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혼과 재혼이 일반적인 양상이 되어간다 할지라도 전라북도에서는 초혼이 가족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일곱째, 전라북도 기혼여성들의 사적지원망을 보면, 일상적, 도구적 측면에서는 주로 친정 식구에게 의존하며, 친교적 측면에서는 친구, 이웃이 중요한 사적지원망의 원천이었다. 즉, 가족 내에

문제가 생기면 친정, 친구, 이웃이 중요한 사적지원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적지원망의 확보는 가족의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그리고 가족생활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적지원시설에 대한 요구도에서는 전반적으로 자녀관련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 2순위로서 중심권에서는 직업관련시설을, 동부산악권에서는 취미여가시설과 의료시설을, 동남부권에서는 가족생활관련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적지원시설에 대한 욕구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적인 의미를 지니는 측면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관련문제 인식은 주로 성격 차, 일방적 대화방식 등의 내인성 갈등으로 나타나, 양자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부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결혼을 앞둔 미혼여성, 남성에게 주어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만큼, 전라북도에서는 공공서비스로서 지역 사회 중심으로 미혼남녀의 결혼 전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방과 후 자녀방치에 대한 문제인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체육, 문화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는 전라북도 기혼여성들이 가족생활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공적지원시설 요구도에서도 자녀관련시설이 1순위로 나타난 것에서도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제안이라 하겠다. 셋째, 경제생활문제 인식은 기초적인 생계비보다 경조사비, 사교육비의 부담인 외인성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만들기 운동'이 필요하다. 즉 경조사비 줄이기 운동과 함께 사교육비의 부담완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건전문화조성을 위한 노력을 민간단체와의 협력 하에 전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라북도에서는 시부모와 기혼여성들의 관계는 상당히 안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측면을 확대, 지속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이 계속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노부모(시부모, 친정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문제인식이 높았던 부문으

로 지적된 '건강문제'를 지역사회 중심의 대 가족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만성적 가족질환자가 있는 경우 전반적으로 가족생활문제인식이 높게 나타난 결과에서도 가족 안정성과 의료서비스 지원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하겠다. 다섯째, 가족폭력 양상은 주로 남편과 관련된 현상으로서 남성들의 의식교육에 대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직장단위의 연수교육프로그램, 예비군교육프로그램 등에 스트레스 관리교육, 합리적인 문제해결능력, 양성평등교육, 좋은 아버지 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전라북도 기혼여성들의 자녀체벌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 전라북도 기혼여성들의 자녀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취약집단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전반적으로 보면 가족생활문제는 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생활의 질이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경제생활과 관련된 조건들은 항상 기본적인 문제가 된다(이기영 외 7인)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안정성에 필요한 기초적인 경제적 기반의 확충을 위한 사회적 지지가 지역 사회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강성희(1996), "도시기혼남녀의 사회적 관계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김양희(1993), 한국가족의 갈등연구, 중앙대학교 출판부.
- 3) 김재엽(1997), 한국인의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김재엽, 이서원(1998), 저소득층의 아내구타 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0집 1호, 한국가족학회.
- 5) 박수정(1992), 중년기 주부의 사회관계망과 심리

- 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6) 변화순 외 3인(1997), 경기도 가족생활실태조사, 경기도.
 - 7) 보건사회연구원(1996), 여성복지시설현황.
 - 8) 서울시 중앙가정상담소(1991), 가정불화-연도별 추세.
 - 9) 오선주(1990), 가족과 사회망과의 관계심도, 인세대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제17집.
 - 10) 이기영, 송혜림, 임정빈, 이연숙, 김의숙, 조재순, 임혜경, 고성혜(1995),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II): 경제생활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권 5호, 115-127.
 - 11) 이경희(199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사회관계망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 학위논문.
 - 12) 이광자(1988), "우리나라 친족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도시중산층 핵가족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이동원(1984), "도시주부의 관계망에 대한 조사(I)-시가 및 친가와외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원논총 44, 7-36.
 - 14) 이성희(1986), 부부의 역할과 사회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15) 이성희(1993), "한국의 이산가족에 관한 연구-가족주의와 사회적 지원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이성희, 하근영(2000), "전라북도 거주 기혼여성의 가족생활실태조사(I)-가족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권 1호, 123-138.
 - 17) 이성희, 한은주(1998), 부양자의 노인학대 경험과 관련요인, 한국노년학회지, 제18권 3호, 한국노년학회.
 - 18) 임희규(1992), "부부의 의사결정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 전길양, 송현애(1997),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가정폭력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 학술대회.
 - 20) 조정문(1997), "한국사회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13권 1호, 87-113.
 - 21) 조홍식(1995), "가족간의 문제인식 및 해결방법", 가족학논집, 제7집, 한국가족학회.
 - 22) 중앙일보, 1998, 8, 18일자
 - 23) 최성재(1994), "복지국가와 가족", 한국가족학회 「세계가정의 해」기념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가족학회, 1-22.
 - 24) 최재석(1975), "도시 중류 아파트 가족의 친족관계", 고대인문논집 20, 155-178.
 - 25) 한국여성개발원(1991), 가족상담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26)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27) 한은주(2000), 노인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8) 허윤정(1997),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의사소통과 갈등해결방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9) Richard J. Gelles(1997),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 3th」, 이동원, 김지선 역(1998), 「가정폭력의 허상과 실상」, 길안사.